

광주시 설계변경 남발...공사비 605억 증액

조호권 시의원 "86개 사업 169차례 변경" 市 "물가변동에 민원 수용한 것일 뿐"

광주시가 각종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605억 원의 공사비를 증액해 지방재정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호권 의원(민주·북구 5)은 16일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년간 총 86개 사업에 169차례 설계변경을 해 605억 원의 공사비를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따르면 설계변경 사업

중 80.2%인 69개 사업이 증액처리됐으며, 늘어난 공사비만 644억원에 달했다.

반면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감액은 14개 사업 39억원에 불과했다. 설계변경을 통해 5억원 이상 대폭 증액된 사업도 무려 19개에 달했다. 설계변경 횟수가 2차례 이상인 사업은 전체 사업의 47.7%인 41개였으며, 6차례 이상 설계변경이 이뤄진 사업도 5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

났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의 경우는 무려 9차례 설계변경을 했다.

이렇게 해서 공사비의 1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전체 86개 사업 가운데 37.2%인 32개 사업에 달했고, 빚고을 노인건강타운조성 통상공사는 증액된 공사비가 전체 사업비의 80.1%에 달했다. 공사비가 50% 이상 증액된 사업도 8개나 됐다.

조 의원은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이 남발돼 지방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분이 반영되더라도, 엄격한 공사관리로 무분별한 설계변경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공사비가 증액된 것은 지역계약에 의한 물가변동 반영분이 242억, 민원인 요구사항 수용 42억여원,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사항 반영 75억여원, 현지어건 변화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248억여원 등이었다"라며 "특히 빚고을노인건강타운은 서비스동 증축과 문화관 증설에 따라 150억여원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또 "물가변동이나 현지어건 변화,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설계변경이 이뤄졌지, 무리하게 공사비를 증액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3년 동안 설계변경 내역을 모두 합하면서 규모가 커진 것"이라고 밝혔다.

최관일기자 cki@kwangju.co.kr



"F1 각종 의혹 밝혀라"

광주전남진보연대 촉구

광주전남진보연대는 16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준영 전남지사는 F1(포틀러원) 대회와 관련, 운영 및 공사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진보연대는 이날 "F1 대회가 치러지는 날까지 경주장 건설이 지연되면서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는가 하면, 미숙한 대회 운영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입장권 판매와 1000억원이 넘는 추가 공사비에 수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남도는 도민에게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이 KAVO와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번 대회가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는데 누가 뭐라해도 KAVO의 대주주인 전남도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박 지사는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 마땅히 도민들에게 잘못을 깊이 사죄하고 운영법인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고소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제기된 F1 대회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전남도회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겨울철 화재예방 꼼꼼하게...

광주 북구청과 소방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16일 화재예방을 위해 북구 지역 노인·의료 복지시설을 찾아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위탁기관 3년간 감사실적 전무 재위탁 심사도 부실...관리 엉망"

김보현 시의원 질타

광주시가 광주시립정신병원 등 사회·복지업무 위탁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할 제대로 하지 않고 재위탁 심사도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김보현 의원(민주·서구 2)은 15일 광주시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서 "광주시가 사무와 행정재산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고 재위탁 심사도 부실하게 하는 등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총체적 부실"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따르면 광주시립정신병원과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건강국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실적이 최근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김 의원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광주시 사무의 민

간위탁조례에는 매년 1회 이상 감사 의무 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 감사관실은 인력이 부족하고 감사업무가 방대해 감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수십억 이상의 행정재산을 관리하거나 사회복지분야에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탁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포기한 것은 지도감독 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평가심사에서도 기존 수탁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운영평가를 만들어 재위탁 심사를 하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립묘원의 경우 재위탁을 위한 운영평가에서 배점의 50%를 시설 운영 실적 항목에 배정해 사실상 기존 수탁자의 재위탁을 가능하게 했고, 광주시립정신병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두 차례 이상 재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했음에도 병원운영상태가 양호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위탁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광주시는 위탁기관 선정에서부터 일상적인 관리감독, 사후평가 등 모든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관일기자 cki@kwangju.co.kr

시베리아 호랑이 세마리 내년 한국 온다

러시아측 약속

러시아가 내년 중으로 시베리아 호랑이 세마리를 보내겠다고 우리 측에 약속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6일 "지난주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난 러시아 정부 당국자들이 호랑이 세마리를 보내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곧 실무협의를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러시아가 보내려는 호랑이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 보내기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호랑이가 어느정도 큰 내년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달중으로 환경부와 동물원 관계자들로 구성된 실무팀을 러시아로 보내 협의를 시작할 예

정이다.

또 오는 21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주관하는 아무르 호랑이 보호 국제포럼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아무르 호랑이로도 불리는 시베리아 호랑이는 현재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북구 우산동에 건강·복지타운...19일 착공

광주시 북구에 국민 체력 증진과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건강·복지타운(조감도)이 생긴다.

광주 북구(청장 송광운)에 따르면 2012년 4월까지 총 사업비 166억여 원을 투입, 우산동 우산근린공원 내 1만508㎡의 부지에 지하 2층·연면적 7655㎡ 규모로 건강·복지타운을 건립한다.

건강타운에는 성인풀(25m 6레인)과 아동풀(15m 5레인)을 갖춘 수영장을 비롯해 에어로빅센터와 헬스장이 조성되고, 언어치료실과 미술

치료실, 놀이치료실을 갖춘 아동복지관이 들어서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주변 지형과 경관에 조화되는 '건물 지중화 및 지상 공원화' 설계 개념을 도입해 도시환경 개선과 사람과 동·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건강복지타운 건립은 47만 북구 주민의 건강증진과 아동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건강과 복지,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공식은 오는 19일 오후 2시 북구 우산동 우산근린공원에서 열린다.

/이종철기자 glee@kwangju.co.kr

상하이 28층 아파트 불...53명 사망

중국 상하이(上海) 중심가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나 53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다. 인도 뉴델리 동부지역에서는 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한 65명이 숨졌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15일 오후 2시15분경(이하 현지시간) 상하이시 정안취(靜安區) 자오저우루의 28층 짜리 아파트에서 불이나 이날 현재까

지 5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화재발생 직후인 전날 오후 5명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 70여명이 화상을 입거나 호흡기를 다쳐 인근의 화산(華山), 화동(華東), 장안취중심 등의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그러나 한국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뉴델리 동부지역에서 15일 오후 발생한 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다. 키란 왈리아 델리주(州) 보건장관은 "이번 사고로 현재까지 65명이 사망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근 병원에는 부상자 12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건물은 뉴델리의 인구 밀집 지역인 랄리타파크에 소재한 5층 구조의 아파트로, 당국은 지난 우기 동안 스며든 습기로 15년 된 이 건물이 약해져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특허방수

1. 여름철에는 전기로 절감 30~40%

2. 겨울철에는 난방비 절감 15~20%

3. 옥상정원을 조성했을 때와 같은 단열효과를 냅니다.

옥상

시공전 / 단열재시공후 / 단열재시공후 / 트라이슈머 시공후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시트방수

2중단열방수

절연방식시공

내구성탁월

전천후시공성

에너지를 절약해줍니다.

1. 여름철에는 전기로 절감 30~40%

2. 겨울철에는 난방비 절감 15~20%

3. 옥상정원을 조성했을 때와 같은 단열효과를 냅니다.

태양열차단

겨울철 실내온도 3~5°C

여름철 전기료 30~40%

겨울철 난방비 15~20%

본사 전속모델

밸런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일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M 또는 이파일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2010 한돈 판매 인증점 선정

대한양돈협회

한돈 판매점이란?

국내산 돼지고기 만을 사용한다는 대한양돈협회 품질보증 제도입니다.

한돈인증점기법

공짜-해피타임 pm2시~pm5시 사이

입장고객님께 보쌈 2인분 + 고기1인분(공짜) = 고기 3인분

(4인분주문 + 고기2인분공짜) = 6인분제공, 포장도가능)

11월 1일 ~ 12월 10일까지 (단 토요일일 제외)

1989·민속촌

숯불돼지갈비 / 냉면전문점

민속촌황송촌총장점

062)222-4815

광주 동구 호남동 73-2

무진주

메가박스 영화관

민속촌 중앙점

파레스호텔

제일극장

광주우체국

IF·U